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느끼며



경남버스(주) 보건담당자
김 윤 선

써어비스 업체에 몸을 담은지 이제 만 1년 6개월 그동안 애로사항도 많았고 흐뭇했던 일거리도 종종 있었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항상 봉사정신으로 헌신한다는 보람속에 나의 하루 일과는 고달픔과 흐뭇함이 뒤범벅 되어가는 나날들이었다. 엄살부리는 환자가 있을 시엔 정말 그 고민도 들어 주어야 하는 상담력도 나에게겐 있어야 했고 어떨때 어머니 같은 손길로 환자를 치료할 적도 많았었다. 이 모두 내가 해야 할 의무며 사명임을 항상 명심하고 불시에 일어나는 사태를 만반의 준비로 그때 그때 잘 수습하는 나의 일……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남자 직원들은 손가락에 약간만 상처가 나도 이것저 어떻게 해 달라는 식으로 손을 불쑥 내민다. 대일밴드를 붙일 정도의 상처를 불쑥 내밀며 장난기 어린 모습을 하며 나를 성가시게 한 일도 있었다.

우리 회사 운전 기사님들께선 하루종일 운전대와 싸움을 하신다. 허리 디스크가 걸려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시며 특히, 열마전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때문에 위장이 나빠지신 분도 간혹 계신다. 숙소에서 주무시고 새벽 첫차를 출발시키느라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드시고 기계속의 우유 한 잔, 이런 기사님들께선 너무나 바쁘신 나머지 자기 자신이 몸에 이상이 있는지조차

모르시고 일에만 항상 열중이시다. 아픈사람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휴식공간을 마련해 드리 질병이 생기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도 나의 일이라 생각이 든다. 사무실 분위기도 바뀌가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상담실도 열고 싶은 마음이다. 모든 병은 마음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맑고 밝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짜증나는 일도 웃는 얼굴, 화가 나는 일도 웃는 얼굴 온통 사무실 내부가 꽃이 필 것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생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환자를 찾아 내야 하겠다. 일종의 조기치료랄까,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자는 것이다.

또 우리 기사님이나 안내양 그리고 숙직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숙소 주변의 청결상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지만 일손이 모자라 미처 손이 안가 더러운 곳이 많다. 그리고 식당도 한 예다. 뽀아내는 매연 바로 그 앞엔 식당 입구. 밥 그릇에 매연을 담아 먹는지 밥을 먹는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숨이 콕콕 막힐 때가 있다. 당하는 사람이 못느끼니 어찌 옆에서 알리가 있을 것이며 설마 안들 누가 선듯 나설 것인가. 서로 보고도 그냥 스치는 안타까운 일들 요즘은 부쩍 산재 환자도 많이 늘어난다.

어떤 안내양 아가씨는 급정거하는 바람에 히프에(골반)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도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좀 덜할 병인데 일에 쫓겨 아파도 참고 일을 한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우리 직장 근로자들은 모두가 모범 사원이 되고자 자기건강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은 응급환자가 나에게 치료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 언제 나타날지, 그때 가면 또 아는 바 대로 열심히 익혀 온 것들을 실력껏 발휘하고자 자그마한 가슴속에 다짐을 해본다. 앞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찾아 더욱 훌륭히 해 낼것을 약속하며 언제나 나의 의무를 다하고 발전있는 보건관리 담당자가 될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위급, 안전사고 대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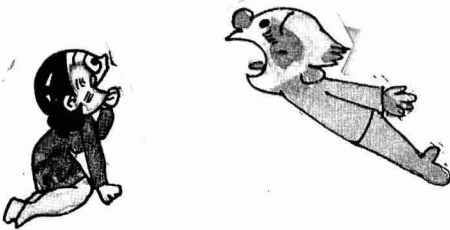
☞ 쇼크상태에 빠졌을 때 ☞

심장마비나 출혈 기타요인으로 순환계 기능이 와해되었을 때의 상태로 숨이 가빠지고 피부가 차며 끈끈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머리카가 가슴부위를 다쳤을 때는 상체를 발쪽보다 25cm 정도 높게 눕히고 머리카가슴이 정상일 때는 상체를 약간 낮게 한다. 그런 후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땀이 나지않을 정도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도록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 갈증을 호소할 경우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삼키도록 하며 환자가 토하거나 복부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는 물을 쥐서는 안된다.



☞ 목구멍에 음식이 걸렸을 때 ☞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목구멍에 걸려 질식상태에 빠지면 숨을 쉴 수 없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럴때는 응급처치자가 환자의 뒤에 바싹서서 양팔로 환자의 몸통을 끌어 안아 환자의 머리상체와 두팔을 앞으로 늘어 뜨린 후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눌러 환자의 위에 압력을 가하며, 배꼽위로부터 갈비밑까지 주먹을 세게 밀어올리는 동작을 빨리 되풀이 한다.



☞ 경련이 일어날 때 ☞

경련이 일어나면서 입술이 파래지고 눈동자가 넘어가며 고개가 뒤로 젖혀질 때는 환자의 경련을 제지시키려 하지 말고 편편한 곳에 환자를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주의할 것은 환자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손수건을 말아 아래 윗니 사이에 넣어 주도록 한다. 그런 후 찬물에 수건을 적서 이마에 얹어준 후 의사를 부르도록 한다.



❖ 뼈거나 골절을 당했을 때 ❖

단순히 빠었을 때는 뺨 부위를 위로 올리고 30 분간 얼음찜질을 하고 부어오른 곳이 심상치 않으면 의사의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부분을 사용하지 말 것이다.

다리·목등 팔의 뼈가 부러졌다고 의심될 때에는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전문가에 즉시 의뢰해야 한다. 부득이 환자를 옮겨야 할 때는 다친 부위에 부목을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중독사고 ❖

가정에서 흔히 상비약을 잘못 복용했거나 주방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 소독물질 등을 잘못 취급함으로써 인해 약물중독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전문가에게 비상연락을 취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대처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우선 이물질을 토하도록 하고 물이나 우유를 먹여 남아있는 독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경련상태에 있을 때는 강제로 토하게 해서는 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시키고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 기절했을 경우 ❖

뛰약벌에 오래 서 있었거나 피로, 허기, 감정적 충격이 심해 기절을 하게 되면 안색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약해지며, 이마에 땀이 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럴때는 환자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 쪽을 낮추며 팍조인 옷은 풀어주고 얼굴과 이마에 찬물을 적신 수건이나 헝겊 등을 덮어주도록 한다. 이때 찬물을 직접 뿌리는 것은 위험하다. 1~2 분동안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만약 기절할것 같은 느낌이 들때는 머리를 굽혀 두 무릎사이에 묻어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